

## 법무매거진

# 골라보는 재미,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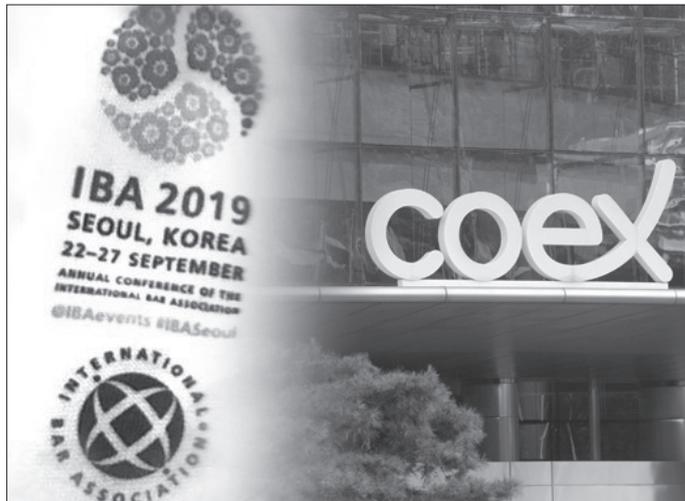


## -법률산업·핀테크 등 ‘세션 200여개’...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니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2~27일 엿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9 IBA 서울 총회(IBA Annual Conference Seoul 2019)’에는 전세계에서 5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200여개에 달하는 전문가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와 로펌들도 행사장인 코엑스를 중심으로 리셉션과 세미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하며 손님맛이에 분주하다.

◇ 200여개 세션에 발표자만 1000명 = IBA 연차총회는 전세계 법조인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로, 법조계에서는 이



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코엑스에서 막을 올리는 IBA 서울 총회에서는 세션 200여개가 법률산업, 인권, 중재,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변호사 1000여명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전문직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국제 난민·아동 보호 △각국 정부와 정치권의 사법부 통제 강화 경향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스타트업·첨단기술산업의 고용 이슈 △인공지능과 사업기밀 보호 △고성장 아시아 M&A의 위험요소 △주주 행동주의에 맞서는 방법 △사모펀드 핫 이슈 등 신(新)산업과 각종 전문 법률 분야를 다루는 세션도 많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다.

### 한국·외국변호사 1000여명, 발표자·패널로 단상에

◇ 법조단체·로펌 부대행사도 ‘풍성’ = 이번 IBA 서울 총회에 참가 등록한 변호사는 5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국내 변호사는 약 500명이다. 변호사와 함께 입국한 동반 가족이나 비서 등은 참가 등록을 하지 않는데다 미등록 참가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회 첫날부터는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국내 주요 법조단체와 로펌들은 국내외 변호사로 구성된 IBA 서울 총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또는 실무지원팀을 조직해 행사준비에 매진하는 한편 청년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 윤리제도’를 주제로 영국 사무변호사협회와, 27일 오후 4시에는 ‘국제중재제도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영국 법정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세계 각국 변호사들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

며 교류할 수 있는 ‘서울나이트’ 유람선 투어를 준비했다. 국내외 변호사 180여명은 26일 한강 선착장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2시간 30분가량 한강 일대 야경을 관람한다. 참석자들은 법조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 ‘마논트로포’의 연주를 들으며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쇼도 구경한다.

### 첫날 기대 모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불투명

25일 수요일 오전 7시 45분에는 코엑스에서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조찬회가 진행되며, 오후 12시 30분부터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 2층에서 인하우스카운슬 포럼이 주최하는 오찬회(Corporate Counsel Networking Lunch)가 이어진다. 사내변호사들은 25일 조찬·오찬회와 별개로 IBA 총회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내변호사 당일 프리패스’를 발급 받아 이날에 한정해 모든 세션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27일에는 국내 공익변호사들이 IBA 프로보노 위원회와 함께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세계 공익변호사의 밤’ 행사를 가진다. 전세계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되며, 서울변회와 로펌 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강남 지역 대형로펌들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주로 본사 건물에서, 강북 지역 대형로펌들은 코엑스 인근에 카페 등의 공간을 빌려 수백여명이 참석하는 리셉션 등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지평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IBA 연차총회 기간 주요 리셉션 및 부대행사

날 짜	주 최	행 사	장 소
22일(일)	IBA	개막식	코엑스
	IBA	웰컴파티	코엑스
	울촌	리셉션1	코엑스 데블스도어
24일(화)	대륙아주	리셉션	르메르디앙 호텔 야외가든
	울촌	리셉션2	파르나스타워*
	지평	리셉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로비바
	태평양	리셉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화우	리셉션	아셈타워*
25일(수)	사내변호사	조찬·오찬회	코엑스·파르나스호텔
	세종	리셉션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바른	리셉션	바른빌딩*
26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	유람선 투어	한강 선착장
27일(금)	공익변호사모임	세계 공익변호사의 밤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로펌 본사 건물

호텔에서, 태평양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해외 로펌 관계자들을 초청한 리셉션을 연다. 같은 날 화우는 사무실이 있는 아셈타워에서 리셉션을 진행한다.

#### 서울변회, 야경 감상 ‘서울나이트’ 유람선 투어 준비

25일에는 세종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각테일 리셉션’을, 바른은 바른빌딩 15층에서 ‘바른 리셉션’을 개최한다. 울촌은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코엑스와 사무실이 있는 파르나스타워에서 ‘SUNDAY DRINKS AFTER DARK’, ‘TUESDAY SUNSET COCKTAIL’ 리셉션을 여는데 1500여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광화문 사무실로 해외 참가자들을 초청하고 강북권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로펌들은 리셉션 뿐만 아니라 개별 미팅과 크고 작은 규모의 조찬·오찬·만찬 행사 등을 통해 다방면의 홍보전을 펼치며 자신들의 강점과 전문성을 각국 변호사에게 소개한다. 태평양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역삼동 본사 건물과 삼성동 행사장 인근 호텔 등에서 각국 변호사들과 100회 이상의 개별미팅을 진행한다. 울촌 등 일부 로펌은 IBA 세션과 별개로 공정거래, 해외투자 등 주제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평과 대륙아주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로펌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형로펌마다 연일  
리셉션·만찬 행사 홍보전 치열

◇ “쉬었다 가세요” 로펌 카페… ‘K-컬처’ 알리는 문화행사도 = 총회 기간에는 국내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비서 등 동반자들도 한국을 찾는다.

로펌들은 대회기간 변호사와 그 동반자 등을 위해 라운지 카페 등 네트워킹·휴식공간을 운영한다. 광장과 세종은 코엑스 인근에서 ‘Cafe Lee & Ko’, ‘Shin & Kim Private Lounge’를 차리고, 충정은 수지스 텔리 식당 앞 테라스 구역을 ‘HMP Business Lounge’로 꾸민다. 바른과 태평양, 화우는 본사 건물 등에서 네트워킹 공간을 운영한다.

한식·다도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도 한몫

이 밖에도 IBA 주최 측이 제공하는 민화 그리기, 한식 만들기, 다도 체험하기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DMZ △남이섬 △영동도 △강릉 컬링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IBA 서울 총회를 준비하는 좌장격인 호스트위원회(Host Committee)는 서울 삼청각에서 전세계 리더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IBA 임원들에게 한국음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IBA 서울 총회 기간 코엑스 광장에서 진행되는 ‘K-pop Concert’에서는 아이돌 그룹 등 한국 가수 7~8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코엑스 내 영화관에서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등 외국어 자막을 넣은 한국영화들이 상영된다.

(출처/법률신문)